

‘하늘 아래 첫째 가는 은행’ 경제침략 맞서 민족금융 수호



대한천일은행 종로지점

9 민족금융의 수호자 ‘대한천일은행’

돈은 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인 요소다. 일본 제국주의와 서구 열강 등의 대외적 간섭이 심해진 개화기 이후 각국이 조선의 경제에 간섭해 돈을 쥐어 놓은 것은 그 때문이다. 대한천일은행은 이 같은 타국의 경제적 침략을 막기 위해 세워진 국내 최초의 민족 자본은행이다.

외국계 자본, 국내 경제를 흔들다

지금으로부터 143년전인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을 비롯한 외국계 은행은 조선의 경제침략을 본격화했다. 특히 일본의 제일은행(다이이치 은행)의 진출은 조선 금융계에 큰 위협이 됐다. 이같은 막강한 외국 자본의 영향력으로 국내 경제의 파탄은 점차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조선의 금융 선각자들은 민족은행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자주적 민족은행의 설립을 추진한 배경이다. 조선은행(1896년), 한성은행(1897년), 대한은행(1898년) 등이 이후 세워졌으나 그 역할을 다하지는 못했다. 대외적 혼란과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점하거나 일제의 자본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조선금융은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진정한 민족은행이 탄생하길 기다려야만 했다.

민족자본의 ‘대한천일은행’

대한제국의 황실 자본과 조선 상인이 중심이 된 ‘대한천일은행’이 설립된 것은 1899년 1월 30일이다. 민족자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상인들은 고종황제의 윤허를 받아 내탕금 3만원을 지원받았고, 정부 관료를 은행 경영진으로 영입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족자본 은행이자 주식회사를 세웠다.

은행명은 ‘하늘 아래 첫째 가는 은행’이란 뜻으로 ‘대한천일은행’이라 명명됐다. 당시 조선금융을 위협했던 일본 제일은행을 의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화폐융통(貨幣融通)은 상무흥왕(商務興旺)의 본(本) 즉,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창립정신을 기반으로 민족자본을 통해 조선의 경제를 살려내고자 했다. 대한천일은행은 “조선사람 이외에는 대한천일은행의 주식을 사고 팔수 없다”고 명시하는 등 민족의 자존을 세우고 외세로부터 은행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도 했다.

대한천일은행은 예금과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은행의 역할과 백동화의 통화량 조절, 황실 및 주요기관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했다. 거래고객 또한 조선상인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본 상인, 청나라상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1899년 5월에는 조선말기 재무행정을 관리하던 중앙관청인 탁지부에 인천·부산·목포 지점 개설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일본의 방해로 부산과 목포지점 개점은 무산됐고, 인천지점이 대한천일은행의 최초 영업점으로 개점됐다.

1902년에는 황실이 직접 자본을 출자해 주주가 되면서 영친왕이 2대 은행장에 취임

하게 된다. 대한민국 황실의 창립 자본금 지원에 이어 영친왕의 은행장 취임은 대한민국 황실이 대한천일은행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상징성을 보여줬다. 이어 1903년 대한천일은행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화를 개통해 본점과 인천지점 간 전화선을 개설했다. 본점과 인천지점을 연결하는 전화는 한국전기통신 100년사에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가입으로 기록돼 당시 최고 수준의 본·지점간 회계·결제·통신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1949년 4월 해방 후 대한천일은행은 은행의 상호를 따 ‘천일’이라는 행내 문예잡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경제·문화·역사 등 다양한 소재를 다뤘던 잡지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집필했던 대한천일은행의 역사를 광복 이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접근했다.

1999년 대한천일은행은 부동산·유가증권·금전 신탁자금 운용전문 금융회사로 기업 금융을 담당했던 한일은행(한국협업은행)과 합병해 한빛은행을 발족했으며, 한빛은행은 2001년 우리금융지주로 편입됐다.

조선 국권 상실로 위축

대한천일은행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자본 은행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내 여건상 충분한 자본금 확보와 원활한 경영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당시 농상공부대신 민병석이 초대 은행장으로 공칭자본금 5만6000원과 불입자본금 2만8000원을 내 대한천일은행을 발족했으나 그해 3월까지 납부된 자본금 총액은 4800원에 불과했다. 고급관료층에서는 민병석·민영기·이근호가, 실업인층에서는 송문섭·김두승·김기영 등 9명이 각각 400원씩 납부한 정도였다.

대한천일은행은 자본금을 모으기 어려워 지자 정부로부터 국고금 5만원을 5년의 상환 기간을 두고 대어 받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은행장에는 영친왕, 부은행장에는 이용익이 취임하게 되면서 은행의 성격은 누구나 이용하는 일반은행이 아닌 황실이나 고위층 인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수은행으로 변질됐다.

이러한 성격변화에 따라 은행 설립의 실질적인 출자자였던 실업인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1905년 경제계의 불황과 자본의 미흡함이 겹쳐 은행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대한천일은행은 1906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휴업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후 일본인 재정고문 메카다의 알선으로 정부로부터 25만 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어 받은 것이 계기가 돼 일본인을 기용함으로써 대한천일은행은 처음으로 일본인 세력의 침투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민족자본을 지키려고 했던 대한천일은행의 움직임은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1910년 이후, 일제의 강요에 따라 ‘대한’이란 용어를 폐기하게 되면서 위축됐다. 약 11년에 이르는 대한천일은행의 역사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 1912년 2월 조선상업은행으로 개칭됐으며, 1950년 한국상업은행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대한천일은행은 민족자본에 기반한 은행 운영을 통해 화폐제도과 재정제도의



대한천일은행 2대 은행장 영친왕

안정을 도모하고, 조선 상인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선 상권을 보호하는 등 일본 금융자본에 맞서 민족 금융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의 의의가 크다.

2014년 6월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은 우리은행 은행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현재 대한천일은행과 관련한 기록물 및 사진 자료는 우리은행 은행사 박물관에서 관람 가능하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사진=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대한천일은행 장책(영인본).



대한천일은행 인천지점.



대한천일은행의 행내 문예잡지 ‘천일’.

외국 자본 침략으로 조선 경제 흔들
1899년 1월30일 조선상인 중심으로
韓 첫 민족자본 은행·주식회사 탄생
백동화 통화량 조절 등 중앙은행 기능
‘인천지점’ 대한천일은행 최초 영업점

화폐와 재정 등 제도 안정 도모하고
상인에 자금 지원 등 조선 상권 보호

1910년 일제 강요에 ‘대한’ 명칭 삭제
광복 후 한일→한빛→우리금융지주로